치위생과 학생의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남
경북대학 치위생과

색인: 기피 환자, 환자 특성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치위생과의 교육목표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증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치과위생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판단력 등을 지닌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직업에 대한 프로페셔널과 자긍심은 물론 전문성을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인격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칔상에서의 환자관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습중 임상실습 때부터 환자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와 환자의 공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치료관계(helping relationship)란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로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와 혼용해서 쓰이는 말이다. 치료관계는 효용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안전감을 느끼고 안전감을 주는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는 충진적 요소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동지향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관계 이론을 치과의 환자-치과위생사 간의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치료관계가 원활지 못하면 환자와 구강건강요인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신뢰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치과위생사는 적절한 자세 자체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치과위생사가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갖는다면 이는 환자와 치과위생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직업 포기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환자와 치과위생사 간의 효율적인 관계형성은 재학중 임상실습환경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중 학생들이 전반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강해져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시 어떤 특성을 지닌 환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피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하였으며, 전문 간호사나 치과위생사가 먼저 환자를 기피하여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임상환경에서 환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로서는 간호학 분야에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Travelbee는 간호사-환자 관계와 간호요율을 지난 개인과 간호사 사이에 일어나는 경험의 연속으로 이를 통해 간호의 목적이 달성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고, King는 간호사와 대상자가 간호상황에 대한 그들의 각자의 각자의 경험을 상호 교환하며, 목표에 동의하게 되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작용, 반응, 상호작용의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Orlando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환자간의 관계형성이라고 하였고, Peplau는 간호사-환자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호상황에 하여금 자아심체, 문제해결,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도움으로써 치료회복에 밀려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Behymer는 간호사들이 흔히 경험하고, 겪는 대도로 취하며, 알게 되면, 대화하려고 접근할 때 흔히하고, 직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는 여자 환자보다는 협조적이고, 이야기하기 쉽고, 사귀기 쉽다고 느끼는 남자 환자 간호하기가 더 신호한다고 하였고, Meyer 등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감정이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전가 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에 대한 불안정 경험심상성을 분석하면서, 간호사의 불안정 행위가 가지는 결과의 환자와 간호사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특히 환자는 간호사가 문제를 되비질적으로 되비효과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김은 충진식 간호형성 교육이 간호사의 독특한 행위와 환자의 자기포기 행위를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윤은 간호학생이 신호하는 환자 특성은 간호수행에 감사하거나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환자였고, 신호하지 않는 환자 특성은 신호학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서비스를 잘하고 신경질적인 환자를 신호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타 분야에 비해 치과위생사와 환자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으며, 더구나 치과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피하는 환자 특성에 관한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습생의 경우 환자진료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환자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환자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며,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미흡하다. 특히 환자의 부정적인 의의나 성격, 연령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에서 기피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학생에게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나아가 임상 교육의 저하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치과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시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피 환자의 특성과
대응법을 알아봄으로써 치위생과 학생과 환자간의 관계 수립 및 효율적인 임상실습 지도에 지침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시 어떤 특성을 지닌 환자를 기피하며, 또한 그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습생과 환자관계 수립 및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나.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다. 기피하는 환자 특성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피 환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마. 기피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바. 기피 환자에 대한 느낌과 대응방법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대학 치위생과에 재학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본 석가능한 245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기피하는 환자 특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 대상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외형적 특성, 성격적 특성, 진료협조적 특성, 인행적 특성 등 4개 영역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기피 정도는 각 문항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기피한다"에 1점, "약간 기피한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약간 기피하지 않는다"에 4점, "전혀 기피하지 않는다"에 5점으로 매도하였다. 또한 기피하는 경험(инфек장 감정)이 있는 환자에 대한 느낌과 대응법은 개발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대상 학생이 직접 사술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임상실습 후의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입시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기피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기피 환자의 특성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피환자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3. 연구성과 및 고찰

3.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Cronbach α 외형적 특성 0.72, 성격적 특성 0.81, 진료협조적 특성 0.82, 인행적 특성 0.85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
표 1. 축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table>
<thead>
<tr>
<th>기피한자특성영역</th>
<th>문항수</th>
<th>Alpha</th>
</tr>
</thead>
<tbody>
<tr>
<td>외형적 특성</td>
<td>4</td>
<td>0.72</td>
</tr>
<tr>
<td>성격적 특성</td>
<td>8</td>
<td>0.81</td>
</tr>
<tr>
<td>진료협조적 특성</td>
<td>7</td>
<td>0.82</td>
</tr>
<tr>
<td>인지적 특성</td>
<td>4</td>
<td>0.85</td>
</tr>
</tbody>
</table>

로 판단되었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thead>
<tr>
<th>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h>
<th>실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45</td>
<td>100.0</td>
</tr>
<tr>
<td>년도</td>
<td></td>
<td></td>
</tr>
<tr>
<td>2학년</td>
<td>128</td>
<td>52.2</td>
</tr>
<tr>
<td>3학년</td>
<td>117</td>
<td>47.8</td>
</tr>
<tr>
<td>주 소재지역</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83</td>
<td>33.9</td>
</tr>
<tr>
<td>중소도시</td>
<td>85</td>
<td>34.7</td>
</tr>
<tr>
<td>올·면·리</td>
<td>77</td>
<td>31.4</td>
</tr>
<tr>
<td>종교</td>
<td></td>
<td></td>
</tr>
<tr>
<td>기독교</td>
<td>80</td>
<td>32.7</td>
</tr>
<tr>
<td>불교</td>
<td>36</td>
<td>14.7</td>
</tr>
<tr>
<td>기타</td>
<td>23</td>
<td>9.4</td>
</tr>
<tr>
<td>무교</td>
<td>106</td>
<td>43.3</td>
</tr>
<tr>
<td>전공 만족도</td>
<td></td>
<td></td>
</tr>
<tr>
<td>만족한다</td>
<td>111</td>
<td>45.3</td>
</tr>
<tr>
<td>그렇지 않다</td>
<td>134</td>
<td>54.7</td>
</tr>
<tr>
<td>임상실습 만족도</td>
<td></td>
<td></td>
</tr>
<tr>
<td>만족한다</td>
<td>96</td>
<td>39.2</td>
</tr>
<tr>
<td>그렇지 않다</td>
<td>124</td>
<td>50.6</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25</td>
<td>10.2</td>
</tr>
<tr>
<td>실습병원 형태</td>
<td></td>
<td></td>
</tr>
<tr>
<td>치과의원</td>
<td>53</td>
<td>21.6</td>
</tr>
<tr>
<td>치과병원</td>
<td>39</td>
<td>15.9</td>
</tr>
<tr>
<td>종합(대학)병원 치과</td>
<td>153</td>
<td>62.4</td>
</tr>
<tr>
<td>총 실습기간</td>
<td></td>
<td></td>
</tr>
<tr>
<td>7주 이하</td>
<td>75</td>
<td>30.6</td>
</tr>
<tr>
<td>8주 이상</td>
<td>170</td>
<td>69.4</td>
</tr>
<tr>
<td>현재 건강상태</td>
<td></td>
<td></td>
</tr>
<tr>
<td>양호하다</td>
<td>174</td>
<td>71.0</td>
</tr>
<tr>
<td>나쁘다</td>
<td>71</td>
<td>29.0</td>
</tr>
</tbody>
</table>
다 많았다. 최근에 실습한 병원형태별로는 종합 (대학)병원 치과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치과의원 21.6%, 치과병원 15.9% 순으로 나타났다. 총 실습시간은 실습기간이 8주 이상 인 학생이 69.4%로, 7주 이하인 학생 30.6%보다 많았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학생이 71.0%를 차지하였고,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은 29.0%로 나타나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 3.3.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 특성

환자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외형적 특성으로는 구취가 심하거나 구강기능이 불량하다는 평균이 3.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용모가 불량하고 단정치 못하다 3.50, 화장, 헤어스타일, 미용 등 차림새가 저나치게 화려하다 3.15, 인상이 혼란하거나 천식기로 호흡이 가는데가 않다 3.11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table>
<thead>
<tr>
<th>영 역</th>
<th>기피하는 환자 특성</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상이 혼란하거나 천식기로 호흡이 가지 않는다</td>
<td>3.11</td>
<td>0.86</td>
</tr>
<tr>
<td></td>
<td>용모가 불량하고 단정치 못하다</td>
<td>3.50</td>
<td>0.87</td>
</tr>
<tr>
<td></td>
<td>화장, 헤어스타일, 미용 등 차림새가 저나치게 화려하다</td>
<td>3.15</td>
<td>0.87</td>
</tr>
<tr>
<td></td>
<td>구취가 심하거나 구강기능이 불량하다</td>
<td>3.94</td>
<td>0.91</td>
</tr>
<tr>
<td></td>
<td>전체</td>
<td>3.42</td>
<td>0.64</td>
</tr>
<tr>
<td></td>
<td>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화하기를 싫어한다</td>
<td>3.43</td>
<td>0.96</td>
</tr>
<tr>
<td></td>
<td>말이 많고 주위가 신중하다</td>
<td>3.07</td>
<td>0.92</td>
</tr>
<tr>
<td></td>
<td>설교의 성향이 있고 소극적이다</td>
<td>2.48</td>
<td>0.84</td>
</tr>
<tr>
<td></td>
<td>차갑고 생방하다</td>
<td>3.36</td>
<td>0.95</td>
</tr>
<tr>
<td></td>
<td>과도하고 급한 적응을 한다</td>
<td>3.92</td>
<td>0.99</td>
</tr>
<tr>
<td></td>
<td>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잘 낸다</td>
<td>4.23</td>
<td>0.95</td>
</tr>
<tr>
<td></td>
<td>불평을 많이 한다</td>
<td>4.05</td>
<td>0.93</td>
</tr>
<tr>
<td></td>
<td>흥분하고 근소리치며 싸우기를 좋아한다</td>
<td>4.41</td>
<td>0.96</td>
</tr>
<tr>
<td></td>
<td>전체</td>
<td>3.62</td>
<td>0.61</td>
</tr>
<tr>
<td></td>
<td>흥분을 과장되게 호소한다</td>
<td>3.63</td>
<td>0.91</td>
</tr>
<tr>
<td></td>
<td>진료액속을 지키지 않는다</td>
<td>3.29</td>
<td>0.90</td>
</tr>
<tr>
<td></td>
<td>진료내용에 대하여 야기 충분하게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제시한다</td>
<td>3.80</td>
<td>0.90</td>
</tr>
<tr>
<td></td>
<td>진료시 요구사항이 많거나 특별 대우받기를 원한다</td>
<td>3.62</td>
<td>0.91</td>
</tr>
<tr>
<td></td>
<td>자신의 병을 무시하지 않는다</td>
<td>3.41</td>
<td>0.89</td>
</tr>
<tr>
<td></td>
<td>진료 수행시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한다</td>
<td>4.00</td>
<td>0.83</td>
</tr>
<tr>
<td></td>
<td>실습학생을 신뢰하지 않는다</td>
<td>4.02</td>
<td>0.95</td>
</tr>
<tr>
<td></td>
<td>전체</td>
<td>3.68</td>
<td>0.62</td>
</tr>
<tr>
<td></td>
<td>반항이나 육성을 한다</td>
<td>4.50</td>
<td>0.91</td>
</tr>
<tr>
<td></td>
<td>호청을 체대로 부르지 않는다</td>
<td>3.81</td>
<td>0.94</td>
</tr>
<tr>
<td></td>
<td>실습학생에게 놀람하고 장난(희롱)을 친다</td>
<td>4.33</td>
<td>0.91</td>
</tr>
<tr>
<td></td>
<td>실습학생을 싫부름으로 취급하고 사소한 것까지 시킨다</td>
<td>4.40</td>
<td>0.90</td>
</tr>
<tr>
<td></td>
<td>전체</td>
<td>4.26</td>
<td>0.76</td>
</tr>
</tbody>
</table>
환자의 외형적 특성으로는 구취와 불편한 구강 상태의 환자들이 가장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성격적 특성으로는 유혹하고 큰 소리치며 싸우기 주향한다. 평균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원이나 신경질을 잘 내다. 평균이 4.23. 불쾌한 환자는 거의 없다. 4.05, 그만하고 잘 난시를 반영한다. 3.9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가 평균이 2.48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많이 많고 주위가 산란하다. 3.07,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화하기를 싫어한다. 3.4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의 성격적 특성 중에는 유혹하고 큰 소리치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소유한 환 자가 가장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임상경험이 부족하고 세밀하게 정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파악능력이 부족한 실습생으로서는 유혹하고 큰 소리치며 호소적인 성격을 보이는 환자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환자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사료된다.

진료협조적 특성 중에는 실습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가 4.02로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료 수행시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4.00, 진료환경에 대하여 이는 치료자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피력한다. 3.80,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한다. 3.63, 진료비 요구사항이 많거나 특별한 요구를 받아들인다. 3.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료 협조적 특성 중에는 실습 학생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를 가장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행적 특성 중에는 반말이나 욕설을 한다가 평균이 4.5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학생을 심부름꾼 취급하고 사소한 것까지 시킨다. 4.40, 실습생에게 농담하고 장난(웃음)을 친다. 4.33, 호칭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다는 3.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언행적 특성 중에는 반말이나 욕설을 하는 환자를 가장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학습이 선호하지 않는 환자 특성으로 “간호학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26%)”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문1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실습학생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는 환자는 실습생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환자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 영역에서는 언행적 특성이 4.26으로 가장 기피하는 특성으로 나타났고, 진료협조적 특성이 3.68, 성격적 특성이 3.62, 외형적 특성이 3.4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료사리가 이어서 일반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치료학생과 학생들이 환자의 반말이나 욕설, 농담이나 장난(웃음) 등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치료학생과 학생이 기피하는 환자 특성은 간호학습이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학습이 선호하지 않는 환자는 간호학생을 무시하거나, 제공된 도움을 거절하는 환자들로 나타났다는 문11)의 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진료사를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환자의 성격, 태도, 대화하기 좋아하는 특성이 환자 선호에 미친다고 보고한 Mitsuwa와 Hall 등12)과 간호사들이 대화적인 환자를 간호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보고한 Dion, Berscheid와 Walster 등13) 그리고 외형적으로 잘 생기고, 호감이 가며 자신의 질병을 수용하고, 명랑하고 재حال며, 간호요구가 높은 환자를 선호한다고 보고한 Elle와 Barbara14) 등의 연구와도 메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었다.

3.4. 기피하는 환자 특성의 영역 간 상관 관계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 특성의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격적 특성은 외향적 특성 \(r = 0.444, p < 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성격적 특성을 기술할수록 외향적 특성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협조적 특성은 외향적 특성 \(r = 0.324, p < 0.001\), 성격적 특성 \(r = 0.691, p < 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았다. 따라서 진료협조적 특성을 기술할수록 외향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행적 특성은 외향적 특성 \(r = 0.265, p < 0.001\), 성격적 특성 \(r = 0.531, p < 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았다. 진료협조적 특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술할수록 외향적 특성을 기여하였고, 진료협조적 특성과 연행적 특성을 기술할수록 외향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 기피하는 환자 특성의 영역간 상관관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외향적 특성</th>
<th>성격적 특성</th>
<th>진료협조적 특성</th>
<th>연행적 특성</th>
</tr>
</thead>
<tbody>
<tr>
<td>외향적 특성</td>
<td>1.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격적 특성</td>
<td>0.444***</td>
<td>1.000</td>
<td>-</td>
<td>-</td>
</tr>
<tr>
<td>진료협조적 특성</td>
<td>0.324***</td>
<td>0.691***</td>
<td>1.000</td>
<td>-</td>
</tr>
<tr>
<td>연행적 특성</td>
<td>0.265***</td>
<td>0.531***</td>
<td>0.680</td>
<td>1.000</td>
</tr>
</tbody>
</table>

***p<.001

---

###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피 환자 특성과의 관계

#### 3.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향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자의 외향적 특성 기피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42로, 학생들은 환자의 외향적 특성을 그다지 기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년별로는 2학년이 평균 3.38, 3학년이 3.47로 나타나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환자의 외향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장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3.41, 중소도시가 3.56, 옥·면·리가 3.29로 나타나 성장지역이 중소도시인 학생이 환자와의 외향적 특성을 가장 많이 기피하였고, 옥·면·리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환자의 외향적 특성을 덜 기피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84, p<0.05\). 이는 성장한 주변 환경이 자연환경과 많이 친숙한 전원지역 학생들은 외향적인 면에 그다지 기피 정도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사각적이고 영상적인 주변 환경과 많이 접하는 중소도시나 대도
<table>
<thead>
<tr>
<th>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h>
<th>N</th>
<th>Mean</th>
<th>SD</th>
<th>t(F)</th>
<th>p</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45</td>
<td>3.42</td>
<td>0.64</td>
<td></td>
<td></td>
</tr>
<tr>
<td>학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학년</td>
<td>128</td>
<td>3.38</td>
<td>0.59</td>
<td></td>
<td></td>
</tr>
<tr>
<td>3학년</td>
<td>117</td>
<td>3.47</td>
<td>0.70</td>
<td>-1.01</td>
<td>0.314</td>
</tr>
<tr>
<td>성장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83</td>
<td>3.41</td>
<td>0.63</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85</td>
<td>3.56</td>
<td>0.61</td>
<td></td>
<td></td>
</tr>
<tr>
<td>응·연·리</td>
<td>77</td>
<td>3.29</td>
<td>0.67</td>
<td>3.94*</td>
<td>0.023</td>
</tr>
<tr>
<td>종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독교</td>
<td>80</td>
<td>3.33</td>
<td>0.67</td>
<td></td>
<td></td>
</tr>
<tr>
<td>불교</td>
<td>36</td>
<td>3.45</td>
<td>0.63</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23</td>
<td>3.68</td>
<td>0.59</td>
<td></td>
<td></td>
</tr>
<tr>
<td>무교</td>
<td>106</td>
<td>3.43</td>
<td>0.63</td>
<td>1.81</td>
<td>0.145</td>
</tr>
<tr>
<td>전공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다</td>
<td>111</td>
<td>3.39</td>
<td>0.70</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134</td>
<td>3.45</td>
<td>0.60</td>
<td>-0.67</td>
<td>0.503</td>
</tr>
<tr>
<td>임상실습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다</td>
<td>96</td>
<td>3.38</td>
<td>0.65</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149</td>
<td>3.46</td>
<td>0.64</td>
<td>-0.97</td>
<td>0.335</td>
</tr>
<tr>
<td>실습병원 형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치과의원</td>
<td>53</td>
<td>3.45</td>
<td>0.60</td>
<td></td>
<td></td>
</tr>
<tr>
<td>치과병원</td>
<td>39</td>
<td>3.45</td>
<td>0.71</td>
<td></td>
<td></td>
</tr>
<tr>
<td>종합(대학)병원 치과</td>
<td>153</td>
<td>3.41</td>
<td>0.64</td>
<td>0.10</td>
<td>0.904</td>
</tr>
<tr>
<td>총 실습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주 이하</td>
<td>75</td>
<td>3.51</td>
<td>0.57</td>
<td></td>
<td></td>
</tr>
<tr>
<td>8주 이상</td>
<td>170</td>
<td>3.39</td>
<td>0.67</td>
<td>1.38</td>
<td>0.168</td>
</tr>
<tr>
<td>전망성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양호하다</td>
<td>174</td>
<td>3.39</td>
<td>0.67</td>
<td></td>
<td></td>
</tr>
<tr>
<td>나쁘다</td>
<td>71</td>
<td>3.51</td>
<td>0.56</td>
<td>-1.34</td>
<td>0.182</td>
</tr>
</tbody>
</table>

*p < .05

시 학생들은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의해 종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된 학의 동 의형적 특성에 대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기독교 인학생이 평균 3.33, 불교인 학생이 3.45, 기타가 3.68, 무교가 3.43으로 나타나 전주교의 기타 종교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자의 의형 적 특성을 기피했으나 카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 만족도별로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전자의 의형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습병원 형태별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각각 평균 3.45, 종합(대학)병원 치과가 3.41로 나타나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전자의 의형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총 실습기간별로는 7주 이내가 평균 3.51, 8주 이상이 3.39로 나타나 총 실습기간이 7주 이내인 학생이 8주 이상 학생보다 학생의 의향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건강상태별로는 양호하다가 평균 3.39, 나쁘다가 3.51로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이 양호한 학생보다 환자의 의향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환자의 의향적 특성을 그다지 기피하지 않았으며, 성장지역이 중소도시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환자의 의향적 특성을 더 많이 기피하였다.

3.5.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자의 성격적 특성 기피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전체 평균이 3.62로 학생들은 환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적 특성

<table>
<thead>
<tr>
<th>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h>
<th>성격적 특성</th>
<th>N</th>
<th>Mean</th>
<th>SD</th>
<th>t(F)</th>
<th>p</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td>
<td>245</td>
<td>3.62</td>
<td>0.61</td>
<td></td>
<td></td>
</tr>
<tr>
<td>학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학년</td>
<td></td>
<td>128</td>
<td>3.58</td>
<td>0.56</td>
<td></td>
<td></td>
</tr>
<tr>
<td>3학년</td>
<td></td>
<td>117</td>
<td>3.66</td>
<td>0.67</td>
<td>-0.94</td>
<td>0.347</td>
</tr>
<tr>
<td>성장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td>
<td>83</td>
<td>3.64</td>
<td>0.58</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td>
<td>85</td>
<td>3.67</td>
<td>0.63</td>
<td></td>
<td></td>
</tr>
<tr>
<td>월·면·리</td>
<td></td>
<td>77</td>
<td>3.53</td>
<td>0.63</td>
<td>1.06</td>
<td>0.348</td>
</tr>
<tr>
<td>종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독교</td>
<td></td>
<td>80</td>
<td>3.58</td>
<td>0.57</td>
<td></td>
<td></td>
</tr>
<tr>
<td>불교</td>
<td></td>
<td>36</td>
<td>3.61</td>
<td>0.61</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23</td>
<td>3.82</td>
<td>0.51</td>
<td></td>
<td></td>
</tr>
<tr>
<td>무교</td>
<td></td>
<td>106</td>
<td>3.60</td>
<td>0.66</td>
<td>0.95</td>
<td>0.417</td>
</tr>
<tr>
<td>전공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한다</td>
<td></td>
<td>111</td>
<td>3.61</td>
<td>0.61</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td>
<td>134</td>
<td>3.62</td>
<td>0.62</td>
<td>-0.11</td>
<td>0.913</td>
</tr>
<tr>
<td>임상실습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한다</td>
<td></td>
<td>96</td>
<td>3.51</td>
<td>0.63</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td>
<td>149</td>
<td>3.68</td>
<td>0.60</td>
<td>-2.13*</td>
<td>0.035</td>
</tr>
<tr>
<td>실습병원형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치과외과</td>
<td></td>
<td>53</td>
<td>3.59</td>
<td>0.60</td>
<td></td>
<td></td>
</tr>
<tr>
<td>치과병원</td>
<td></td>
<td>39</td>
<td>3.66</td>
<td>0.76</td>
<td></td>
<td></td>
</tr>
<tr>
<td>종합(대학)병원 치과</td>
<td></td>
<td>153</td>
<td>3.62</td>
<td>0.58</td>
<td>0.12</td>
<td>0.888</td>
</tr>
<tr>
<td>총 실습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주 이내</td>
<td></td>
<td>75</td>
<td>3.60</td>
<td>0.57</td>
<td></td>
<td></td>
</tr>
<tr>
<td>8주 이상</td>
<td></td>
<td>170</td>
<td>3.62</td>
<td>0.63</td>
<td>-0.24</td>
<td>0.813</td>
</tr>
<tr>
<td>건강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양호하다</td>
<td></td>
<td>174</td>
<td>3.57</td>
<td>0.61</td>
<td></td>
<td></td>
</tr>
<tr>
<td>나쁘다</td>
<td></td>
<td>71</td>
<td>3.74</td>
<td>0.60</td>
<td>-2.03*</td>
<td>0.043</td>
</tr>
</tbody>
</table>

* p<.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현년별로는 2학년이 평균 3.58, 3학년이 3.66
으로 나타나 3학년이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판매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장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
균 3.64, 중소도시 3.67, 음·면·리 3.53으로 나타나 성장지역이 음·면·리 지역인 학생이 대
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학생보다 판매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평균 3.58, 불교 3.61, 기타 3.82, 무교 3.60으로 나타나 종교가
전교와 비어도 기독교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판매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중 만족도별로는 만족
한다고 평균 3.61, 만족하지 않다고 3.62로 나타나 전중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
은 학생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별로는 만족한다고 평균
3.51, 만족하지 않다고 나타나 임상실
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
생보다 판매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2.13, 
p < 0.05), 차이가 학생은 자신이 실습하는 병
원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을 때 현재보다 더 낮은 속도를 크게 느꼈다 13]로 하였으며, 이러한 스타드레스
로 인해 기생성 성격을 보이는 판매자의 관계
에서 더욱 위축되는 감정적·신체적·행동적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병원 형태별로는 치과과의원 평균 3.59, 치과병
원 3.66, 종합(대학)병원 치과 3.62로 나타나 치
과병원에서 실습한 학생이 치과과의원과 종합(대
학)병원 치과에서 실습한 학생보다 판매자의 성
격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
나였다. 종 실습기간별로는 7주 이이가 평균
3.60, 8주 이상이 3.62로 나타나 종 실습기간이 7주 이내인 학생과 8주 이상인 학생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장상태별로는 양호하
다가 평균 3.57, 나쁘다가 3.74로 전장상태가 나
쁜 학생이 양호한 학생보다 판매자의 성격적 특
성을 기피하였으며, 전장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2.03, p < 0.05). 이는 옥시체
중으로 의존하고 전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가 아니고 의도되지 않게 되며, 마음의
여유도 부족하여 판매자의 부정적인 성격에 대해
여 엄격하게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기피하게
되려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판매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며, 전장상태가 나쁜 학생이 좋은 학
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판매자의 성격적 특성을 더 많이 기피
하였다.

3.5.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
료협조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판매의 진
료협조 특성 기여 정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전체 평균이 3.68로, 학생들은 판매의
진료협조 특성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현년별로는 2학년이 평균 3.64, 3학년이 3.73
으로 나타나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판
매의 진료협조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
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장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3.68, 중소도시 3.73, 음·면·리 3.63으로
나타나 성장지역이 중소도시인 학생이 판매자의
진료협조 특성을 가장 많이 기여하였고, 음·면
리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판
매의 진료협조 특성을 덜 기여하였으나 성장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별로
는 기독교가 평균 3.62, 불교 3.73, 기타 3.85, 무
교 3.67로 나타나 종교가 전교와 비어도 기독교 외 기타 종교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협조적 특성

<table>
<thead>
<tr>
<th>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h>
<th>진료협조적 특성</th>
<th>N</th>
<th>Mean</th>
<th>SD</th>
<th>t(F)</th>
<th>p</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td>
<td>245</td>
<td>3.68</td>
<td>0.62</td>
<td></td>
<td></td>
</tr>
<tr>
<td>학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학년</td>
<td></td>
<td>128</td>
<td>3.64</td>
<td>0.56</td>
<td>-1.06</td>
<td>0.293</td>
</tr>
<tr>
<td>3학년</td>
<td></td>
<td>117</td>
<td>3.73</td>
<td>0.69</td>
<td></td>
<td></td>
</tr>
<tr>
<td>성장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td>
<td>83</td>
<td>3.68</td>
<td>0.62</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td>
<td>85</td>
<td>3.73</td>
<td>0.61</td>
<td></td>
<td></td>
</tr>
<tr>
<td>읍·면·리</td>
<td></td>
<td>77</td>
<td>3.63</td>
<td>0.64</td>
<td>0.55</td>
<td>0.581</td>
</tr>
<tr>
<td>종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독교</td>
<td></td>
<td>80</td>
<td>3.62</td>
<td>0.61</td>
<td></td>
<td></td>
</tr>
<tr>
<td>불교</td>
<td></td>
<td>36</td>
<td>3.73</td>
<td>0.58</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23</td>
<td>3.85</td>
<td>0.56</td>
<td></td>
<td></td>
</tr>
<tr>
<td>무교</td>
<td></td>
<td>106</td>
<td>3.67</td>
<td>0.65</td>
<td>0.94</td>
<td>0.423</td>
</tr>
<tr>
<td>전공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한다</td>
<td></td>
<td>111</td>
<td>3.62</td>
<td>0.60</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td>
<td>134</td>
<td>3.73</td>
<td>0.64</td>
<td>-1.42</td>
<td>0.156</td>
</tr>
<tr>
<td>임상실습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한다</td>
<td></td>
<td>96</td>
<td>3.59</td>
<td>0.61</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td>
<td>149</td>
<td>3.74</td>
<td>0.62</td>
<td>-1.92</td>
<td>0.055</td>
</tr>
<tr>
<td>실습병원형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치과의원</td>
<td></td>
<td>53</td>
<td>3.57</td>
<td>0.62</td>
<td></td>
<td></td>
</tr>
<tr>
<td>치과병원</td>
<td></td>
<td>39</td>
<td>3.88</td>
<td>0.71</td>
<td></td>
<td></td>
</tr>
<tr>
<td>중합(대학)병원 치과</td>
<td></td>
<td>153</td>
<td>3.67</td>
<td>0.59</td>
<td>2.92</td>
<td>0.056</td>
</tr>
<tr>
<td>총 실습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주 이내</td>
<td></td>
<td>75</td>
<td>3.64</td>
<td>0.61</td>
<td></td>
<td></td>
</tr>
<tr>
<td>8주 이상</td>
<td></td>
<td>170</td>
<td>3.70</td>
<td>0.63</td>
<td>-0.72</td>
<td>0.474</td>
</tr>
<tr>
<td>건강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양호하다</td>
<td></td>
<td>174</td>
<td>3.64</td>
<td>0.60</td>
<td></td>
<td></td>
</tr>
<tr>
<td>나쁘다</td>
<td></td>
<td>71</td>
<td>3.77</td>
<td>0.67</td>
<td>-1.51</td>
<td>0.133</td>
</tr>
</tbody>
</table>

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환자의 진료협조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 만족도별로는 만족한다가 평균 3.62, 만족하지 않는다가 3.73으로 나타나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환자의 진료협조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와는 만족한다가 평균 3.59, 만족하지 않는다가 3.74로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환자의 진료협조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실습병원 형태별로는 치과의원이 평균 3.57, 치과병원 3.88, 중합(대학)병원 치과가 3.67로 나타나 치과병원에서 실습한 학생이 환자의 진료협조적 특성을 가장 기피하였고, 치과병원에서 실습한 학생이 중합(대학)병원 치과에서 실습한 학생보다 진료협조적 특성을 덜 기피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총 실습기간별로는 7주 이내가 평균 3.64, 8주 이상이 3.70으로 나타나 총 실습기간이 8주 이상인 학생이 7주 이내인 학생보다 환자의 진료협조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장상태별로는 양호하다가 평균 3.64, 나쁘다가 3.77로 나타나 전장상태가 다른 학생이 양호한 학생보다 환자의 진료 협조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나 전장상태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환자의 진료 협조적 특성을 기피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5.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행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자의 연행적 특성 기피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전체 평균이 4.26으로, 학생들은 환자의 연행적 특성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며칠 학년별로는 2학년이 평균 4.24, 3학년이 4.28로 나타나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장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4.33, 중소도시 4.25, 읍면리 4.20으로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행적 특성

<table>
<thead>
<tr>
<th>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h>
<th>N</th>
<th>Mean</th>
<th>SD</th>
<th>t(F)</th>
<th>p</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45</td>
<td>4.26</td>
<td>0.76</td>
<td></td>
<td></td>
</tr>
<tr>
<td>학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학년</td>
<td>128</td>
<td>4.24</td>
<td>0.69</td>
<td></td>
<td></td>
</tr>
<tr>
<td>3학년</td>
<td>117</td>
<td>4.28</td>
<td>0.82</td>
<td>-0.47</td>
<td>0.636</td>
</tr>
<tr>
<td>성장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83</td>
<td>4.33</td>
<td>0.79</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85</td>
<td>4.25</td>
<td>0.69</td>
<td></td>
<td></td>
</tr>
<tr>
<td>읍면리</td>
<td>77</td>
<td>4.20</td>
<td>0.79</td>
<td>0.57</td>
<td>0.566</td>
</tr>
<tr>
<td>종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독교</td>
<td>80</td>
<td>4.19</td>
<td>0.83</td>
<td></td>
<td></td>
</tr>
<tr>
<td>불교</td>
<td>36</td>
<td>4.28</td>
<td>0.76</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23</td>
<td>4.58</td>
<td>0.49</td>
<td></td>
<td></td>
</tr>
<tr>
<td>무교</td>
<td>106</td>
<td>4.24</td>
<td>0.74</td>
<td>1.63</td>
<td>0.184</td>
</tr>
<tr>
<td>전공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다</td>
<td>111</td>
<td>4.21</td>
<td>0.73</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134</td>
<td>4.31</td>
<td>0.77</td>
<td>-1.04</td>
<td>0.299</td>
</tr>
<tr>
<td>임상실습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다</td>
<td>96</td>
<td>4.20</td>
<td>0.72</td>
<td></td>
<td></td>
</tr>
<tr>
<td>만족하지 않는다</td>
<td>149</td>
<td>4.30</td>
<td>0.78</td>
<td>-0.95</td>
<td>0.344</td>
</tr>
<tr>
<td>실습병원 형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치과의원</td>
<td>53</td>
<td>4.25</td>
<td>0.71</td>
<td></td>
<td></td>
</tr>
<tr>
<td>치과병원</td>
<td>39</td>
<td>4.35</td>
<td>0.80</td>
<td></td>
<td></td>
</tr>
<tr>
<td>종합(대학)병원 치과</td>
<td>153</td>
<td>4.24</td>
<td>0.77</td>
<td>0.31</td>
<td>0.737</td>
</tr>
<tr>
<td>총 실습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주 이내</td>
<td>75</td>
<td>4.22</td>
<td>0.74</td>
<td></td>
<td></td>
</tr>
<tr>
<td>8주 이상</td>
<td>170</td>
<td>4.28</td>
<td>0.76</td>
<td>-0.51</td>
<td>0.613</td>
</tr>
<tr>
<td>건강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양호하다</td>
<td>174</td>
<td>4.26</td>
<td>0.72</td>
<td></td>
<td></td>
</tr>
<tr>
<td>나쁘다</td>
<td>71</td>
<td>4.27</td>
<td>0.85</td>
<td>-0.14</td>
<td>0.885</td>
</tr>
</tbody>
</table>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2, No. 1, 2002

3.6. 한자 기피에 영향하는 한자의 일반적 특성

한자 기피에 영향하는 한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기피하는 한자의 영향증도는 33.5%로 60대 이상의 노인의 26.1% 1~3세 영유아 20.4%, 20~60세 성인 17.6% 순으로 기피하였으며, 7~13세 학령기 아동과 14~25세 청소년 및 청소년을 기피하는 학생은 각각 1.2%로부터 많았다. 미취학 아동의 특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인에게 속박되기를 싫어하며, 특히 유구준비에 대한 극복훈련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개 양 지 못하는 치과치료에의 복합과 공포가 크고, 제 3차(치과의사 및 치원)의 신체적 접근 때문에 오는 두려움, 성인이나 주의의 만식에 안전한 불안으로 인해 치료한 경이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불안 심리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기나 치료방향을 보이익 싸우며 싸우며 화를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14)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습생은 미취학 화자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연령별 화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실습생은 여자 28.6%보다 남자 71.4%로 더 많이 기피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자 선호에 영향하는 한자 특성을 보고하면서 간호학생이 여자 화자를 더 선호한다고 보고한 륄11)의 결과와는 일치하였고, 간호학생들이 남자 화자를 더 선호한다는 Abdellah17)와 Behymer2)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이 모두 여성학생이고 미혼인 점에서 볼 때, 이성 간의 관계에 의존을 두는 유교적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한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이라고 사료된다.
표 9.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thead>
<tr>
<th>기피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th>
<th>실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45</td>
<td>100.0</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r>
<tr>
<td>영유아(1~3세)</td>
<td>50</td>
<td>20.4</td>
</tr>
<tr>
<td>미취학 아동(4~6세)</td>
<td>82</td>
<td>33.5</td>
</tr>
<tr>
<td>화학기 아동(7~13세)</td>
<td>3</td>
<td>1.2</td>
</tr>
<tr>
<td>청소년 및 청년(14~25세)</td>
<td>3</td>
<td>1.2</td>
</tr>
<tr>
<td>성인(26~60세)</td>
<td>43</td>
<td>17.6</td>
</tr>
<tr>
<td>노인(61세 이상)</td>
<td>64</td>
<td>26.1</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r>
<tr>
<td>남자</td>
<td>175</td>
<td>71.4</td>
</tr>
<tr>
<td>여자</td>
<td>70</td>
<td>28.6</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r>
<tr>
<td>회피 직업 없음</td>
<td>154</td>
<td>62.9</td>
</tr>
<tr>
<td>무직</td>
<td>16</td>
<td>6.5</td>
</tr>
<tr>
<td>자영업</td>
<td>1</td>
<td>0.4</td>
</tr>
<tr>
<td>판매/서비스직</td>
<td>17</td>
<td>6.9</td>
</tr>
<tr>
<td>사무직</td>
<td>9</td>
<td>3.7</td>
</tr>
<tr>
<td>전문기술직</td>
<td>11</td>
<td>4.5</td>
</tr>
<tr>
<td>경영자/관리자</td>
<td>3</td>
<td>1.2</td>
</tr>
<tr>
<td>전문직/자유업</td>
<td>12</td>
<td>4.9</td>
</tr>
<tr>
<td>농·어업</td>
<td>1</td>
<td>0.4</td>
</tr>
<tr>
<td>기타</td>
<td>21</td>
<td>8.6</td>
</tr>
<tr>
<td>특수환자</td>
<td></td>
<td></td>
</tr>
<tr>
<td>장애인</td>
<td>65</td>
<td>26.5</td>
</tr>
<tr>
<td>장기 임원환자</td>
<td>41</td>
<td>16.7</td>
</tr>
<tr>
<td>임신부</td>
<td>22</td>
<td>9.0</td>
</tr>
<tr>
<td>노인</td>
<td>47</td>
<td>19.2</td>
</tr>
<tr>
<td>기타</td>
<td>70</td>
<td>28.6</td>
</tr>
<tr>
<td>진료내용</td>
<td></td>
<td></td>
</tr>
<tr>
<td>소아환자</td>
<td>76</td>
<td>31.0</td>
</tr>
<tr>
<td>체주질환자</td>
<td>52</td>
<td>21.2</td>
</tr>
<tr>
<td>교정환자</td>
<td>19</td>
<td>7.8</td>
</tr>
<tr>
<td>보존환자</td>
<td>20</td>
<td>8.2</td>
</tr>
<tr>
<td>보철환자</td>
<td>28</td>
<td>11.4</td>
</tr>
<tr>
<td>구강의학환자</td>
<td>37</td>
<td>15.1</td>
</tr>
<tr>
<td>기타</td>
<td>13</td>
<td>5.3</td>
</tr>
</tbody>
</table>

직업별로는 회피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으나 판매/서비스직을 6.9%로 기피하였고, 다음으로 무직 6.5%, 전문직/자유업 4.9%, 전문기술직 4.5%, 사무직 3.7% 순으로 기피하였으며, 자영업과 경영자/관리자, 농·어업을 기피하는 경우는 각각 0.4%, 1.2%, 0.4%로 매우 적았다. 이는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선임관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며, 치과
에 내원하는 환자의 인격사항에 적립을 기록하는 경우가 적은 것도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수환자 대상별로는 장애인을 26.5%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노인 19.2%, 장기
입원환자 16.7%, 입산부 9.0% 순으로 기록하였다.
장애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불안이나 흥분
가 심하고, 구강에 질환 또한 약화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치료중 행동조절이 어렵고 발
작 중상이나 근수축 등 예측할 수 없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를 처음 접하는 실습
생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진
의환자의 대상 두려움 등이 작용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특수환자 대상에서 28.6%로 응답한 기
타 환자에는 기기 환자의 특성 항목 내용 중
복되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구별되는 응답으
로는 구호발음과 보이는 환자, 진심이나 감정이
우려되는 환자, 진심명암을 가진 환자, 외국인
등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러한 환자에 대한 특
성과 대응법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환자 진료내용별로는 소아환자를 31.0%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청각장제환자
21.2%, 구강외과환자 15.1%, 보존환자 11.4%,
보존환자 8.2%, 교정환자 7.8% 순으로 기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의환자가 어려거나
진료내용에 있어 출혈이나 절개 등 부가적
드는 진료,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진료내용
에 대하여 실습생의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3.7. 기기 환자에 대한 느낌과 대응

기기 환자(부정적 감정)이 있는 환자를 접했을 때의 느낌과 대응법은 개방형 문항으로서
직접 사후설문기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기기 환자에 대한 느낌으로는 기본이 나쁘다,
주로 나쁘다. 그러나, 필요하다. 마음(자존심)이 상한
다. 기대감이 높다. 지지부진하다. 시비걸고 실어
가다. 별로 좋지 않다. 속상하고 떼어주고 싶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가벼운 느낌이다. 살아
가기 어렵다. 상해받지 않고 생각한다. 별
로 기대하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다.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싸울수있다. 다시는 진료
하고 싶지 않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살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다. 비슷한 생각이 든다. 거리감이 든다. 그날
되돌려 보내고 싶다 등과 같이 대부분이 부정
적인 느낌으로 나타났다.

기기 환자에 대한 대응으로는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부정적 대응으
로 무응주하게 된다. 표정을 차갑게 한다. 자세
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진료를 대응하게 된다.
받음을 보이지 않는다. 되도록 피하고 부딪히지
않으려 한다. 폭력이 혹은 친절한 대응으로 한다. 거리감
을 돈다. 무시해 버린다. 불신감하게 대한다. 실
득시켜 본다. 다른 사람들과 비웃거나 미리다. 경
비나 경찰을 부른다. 원장에게 직접 상담하도록
한다. 엄격하게 대한다. 환자에게 주의를 준다.
가볍게 대한다. 환자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이유의 오해 없이 빠르게 외면해 버린다. 그날가만히 있는가. 말을 걸지 않고 대
할 말한다. Suction을 멈추며 나가고 독치는 등
표현한다. 성의없이 대응ドラ 초고를 하며
대한다.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이다. 두 번째는 긍정
적인 대응으로 그냥 듣으며 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양해를 구한다. 더욱 부드럽게 대한다.
적절함으로부터 표현하지 않는다. 눈을 감바
<table>
<thead>
<tr>
<th>기피 환자에 대한 느낌</th>
<th>기피 환자에 대한 대응</th>
<th>공정적 대응</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이 나쁘다</td>
<td>무표정하게 된다</td>
<td>그냥 옷으로 한다</td>
</tr>
<tr>
<td>짜증난다</td>
<td>표정을 차려게 한다</td>
<td>친절하게 대한다</td>
</tr>
<tr>
<td>싫다</td>
<td>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td>
<td>양해해 주다</td>
</tr>
<tr>
<td>불쾌하다</td>
<td>진료를 대충하게 된다</td>
<td>더욱 부드럽게 대한다</td>
</tr>
<tr>
<td>마음(자존심)이 상한다</td>
<td>반응을 보이지 않는다</td>
<td>적절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 는다</td>
</tr>
<tr>
<td>기부감이 든다</td>
<td>되도록 피하고 부딪히지 않으려 한다</td>
<td>눈을 돋보여 보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td>
</tr>
<tr>
<td>차단하다</td>
<td>한다</td>
<td></td>
</tr>
<tr>
<td>비비 król 살아진다</td>
<td>편히 비판적 끝을 한다</td>
<td></td>
</tr>
<tr>
<td>별로 좋아하지 않다</td>
<td>거리감을 둔다</td>
<td></td>
</tr>
<tr>
<td>속상하고 때려주고 싶다</td>
<td>무서워 버린다</td>
<td></td>
</tr>
<tr>
<td>저리고 싶을 때 하는 마음이 든다</td>
<td>불안정하게 대한다</td>
<td></td>
</tr>
<tr>
<td>결벽 놀란다</td>
<td>설득시켜 본다</td>
<td></td>
</tr>
<tr>
<td>신뢰할 수 없다</td>
<td>다른 사람과 바꾸거나 미룬다</td>
<td></td>
</tr>
<tr>
<td>예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td>
<td>걸려나 걸렸을 뿐이다</td>
<td>불편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 시킨다</td>
</tr>
<tr>
<td>매우 당혹스럽다</td>
<td>원정남에게 적절 상담하도록 한다</td>
<td></td>
</tr>
<tr>
<td>당연하다고 생각한다</td>
<td>임무적으로 대한다</td>
<td></td>
</tr>
<tr>
<td>별로 기대하지 않다</td>
<td>환자에게 주의를 준다</td>
<td></td>
</tr>
<tr>
<td>무례하다</td>
<td>가볍게 대꾸한다</td>
<td></td>
</tr>
<tr>
<td>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싱그럽다</td>
<td>환자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td>
<td>침착하게 대처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편이다</td>
</tr>
<tr>
<td>다시는 진료하고 싶지 않다</td>
<td>어차피 오래 있을 것이 아니라 의</td>
<td></td>
</tr>
<tr>
<td>희가 낮다</td>
<td>면해 버린다</td>
<td></td>
</tr>
<tr>
<td>환담하다</td>
<td>그냥 가만히 있다</td>
<td></td>
</tr>
<tr>
<td>맞서 싸우고 싶다</td>
<td>말을 걸지 않고 내 할 일만 한다</td>
<td>이견을 겪었고 달래준다</td>
</tr>
<tr>
<td>자수없이 없다</td>
<td>Suction을 끄고 대거나 독 치는 등</td>
<td></td>
</tr>
<tr>
<td>실습하기 싫다</td>
<td>표현한다</td>
<td></td>
</tr>
<tr>
<td>피하고 싶다</td>
<td>성의없이 대충 든고 대충 대답한다</td>
<td></td>
</tr>
<tr>
<td>힘들다</td>
<td>대응하기 어렵다</td>
<td></td>
</tr>
<tr>
<td>믿히다</td>
<td></td>
<td></td>
</tr>
<tr>
<td>믿히지 않다</td>
<td></td>
<td></td>
</tr>
<tr>
<td>내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든다</td>
<td></td>
<td></td>
</tr>
<tr>
<td>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td>
<td></td>
<td></td>
</tr>
<tr>
<td>귀찮은 생각이 든다</td>
<td></td>
<td></td>
</tr>
<tr>
<td>거리감이 든다</td>
<td></td>
<td></td>
</tr>
<tr>
<td>그냥 되돌려 보내고 싶다</td>
<td></td>
<td></td>
</tr>
</tbody>
</table>
로 보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환자의 요구대로 그날 받아준다. 환자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 진료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평면시처럼 일반 환자와 독감이 대한다. 실습생의 봉사에 대해 설명해 갈까지 참고 돌아다. 단호하게 대처한다. 감정대로 대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편이다. 논리와 물리가 결합한, 환자의 신경을 이끌어내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신생인들의 지도에 따라 한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실습현장에서의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 어려운 대인관계, 불분명한 역할 및 활동, 이유와 가치관의 혼란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불신은 환자와 실습생활의 효율적인 관계형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실습생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 관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은 물론 부정적 감정 이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다는 점을 인식하여 환자를 기피하는 행위를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가까운 상황을 치위생과 학생 자신의 임상에서 경험해 보는 역할극(Role play) 등의 학습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환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가볍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과 적극적인 대응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임상에서 경험, 상담, 교육자의 치위생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점차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괄적으로 보아 치위생과 학생들은 만남이나 육식을 하는 환자, 농담하고 간단(목동)을 치는 환자, 심부름을 취급하고 사소한 것까지 시키는 환자 등의 인생적 특성에서 가장 기피하였고, 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소아환자와 장애인,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환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대응법도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은 치위생과 교육의 한 부분으로써는 안 될 중요한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첫 임상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은 미래의 교육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환자와의 관계형성을 기피하는 환자의 특성에 대한 대응법의 이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4. 연구의 제언점

본 연구는 개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특성 요인의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환자 기피에 영향하는 환자 특성과 대응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임상에서의 환자관계 수립 및 효율적인 임상실습 지도에 정비되어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K대학 치위생과에 재학생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 가능한 24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자기피에 영향하는 환자의 의심적 특성, 성격적 특성, 진료협조적 특성, 업무적 특성 중 치위생과 학생이 가장 기피하는 환자의 특성은 의지력 특성(4.26)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료협조적 특성(3.68), 성격적 특성(3.62), 외형적 특성(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장 기피하는 환자의 특성 내용으로는 외형적 특성에서 구취가 심하거나 구강상태가 불결하다(3.94)가 가장 높았고, 성격적 특성에서는 농하고 몽소리치며 싸우기를 좋아한다(4.41)가 가장 높았다. 또한 진료협조적 특성에서는 실습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4.02)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적 특성에서는 발랄이나 옥실을 한다(4.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기피하는 환자 특성의 영역 간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는데, 환자의 성격적 특성을 기피할수록 의지적 특성(r = .444, p < .001)을 기피하였고, 진료협조적 특성을 기피할수록 의지적 특성(r = .324, p < .001)과 성격적 특성(r = .691, p < .001)을 기피하였으며, 업무적 특성을 기피할수록 의지적 특성(r = .265, p < .001)과 성격적 특성(r = .531, p < .001)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피하는 환자 특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지적 특성에서 대상자의 성장지역(p < .05)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격적 특성에서는 대상자 실습 만족도(p < .05)와 건강상태(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 치위생과 학생이 기피하는 환자의 일반적 연령층은 4~6세의 미취학 아동(33.5%)을 가장 기피하였고,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71.4%)를 더 기피하였으며, 직업에서는 기피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62.9%)가 가장 많았다. 또한 특수환자 대상에서는 장애인(26.5%)을 가장 많이 기피하였고, 환자 진료 내용에서는 소아환자(31.0%)를 가장 많이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기피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많이 나타나.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이를 위한 이론과 실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2. 김순자 외 3인. 기본간호학. 수문사. 1992; 33-34.
205-207.
9. 전현숙. 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에 대한 불만감과 경험 현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6.
15. 김영남. 치료와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논문, 2000; 373-390.
18. 김종배 외 13인. 임상에반처학. 고문사, 2000; 37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ffecting the Behavior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voiding Patients

Young-Nam Kim

Dept. of Dental Hygiene, Kyung Bok College

Key Words: Avoiding Patients,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his study is designed to offer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the instruction of effective clinical pract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with patients by means of making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ffecting the behavior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voiding patients and countermeasures.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worked with sophomores and juniors exposed to clinical practices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October 22, 2001 to November 9, 2001. The researcher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is survey.

1.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fluencing the behavior of avoiding them were categorized into appearanc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reatment-cooperative characteristics, and speech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Speech and behavior characteristics(4.26) turne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all, which was followed by treatment-cooperative characteristics(3.68), personality characteristics(3.62) and appearance characteristics(3.42) in the right order.

2. The survey shows that foul breath and obnoxious oral(3.94) cavity were the worst factors of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that using abusive language and being too aggressive(4.41) were the worst factor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study reveals that not putting faith in trainees(4.02) was the highest factor of treatment-cooperative characteristics and that using abusive language(4.50) was the highest factor of speech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3.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domains of the characteristics of avoiding patients.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more subjects avoided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he more they avoided appearance characteristics($r = .444$, $p < .001$) and that the more subjects avoided treatment-cooperative characteristics, the more they avoided appearance characteristics($r = .324$, $p < .001$)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r = .691$, $p < .001$), and that the more they avoided speech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the more they avoided appearance characteristics($r = .265$, $p < .001$)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r = .531$, $p < .001$).

4. The study show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the growth areas of the subjects($p < .05$) a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s($p < .05$) and health status($p < .05$) in term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5. The subjects avoided preschoolers, whose age ranged from 4 to 6(33.5%), most and avoided boys(71.4%) more than girls. They avoided those who were bereft of jobs(62.9%). And they avoided handicapped persons most in terms of special patients and avoided infant patients(31.0%).

6. The subjects turned out to have negative and pass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ose patients that had ever been avoided. So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oretic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in this respect by incorporating this matter into the hygiene curriculum.